

설교자회의(20240524)

1. 본문: 사도행전 1:3~11절

제목: 제자에서 사도로

대지 1. 예수님의 부재

2. 성령님의 임재

한줄 요약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약속의 성취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연구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원래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 멀리 파견된 자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 받은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4,5절과 7,8절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내용은 요엘서 2:28~29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며, 그것이 요엘서에 약속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을 보면 ‘기다리라’는 동사를 통해 그들이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시면서 두 절이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이 성령의 임재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8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관심은 갖지 말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를 삼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사도행전은 이것을 증인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는 영어로 ‘martyr’로 ‘순교자, 순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자신이 행복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며, 그런 삶을 살아도 그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그만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길임을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설교자회의(20240524)

2. 본문: 사도행전 9:1~9절

제목: 뒤집어진 사울

대지 1. 살기가 등등한 사람

2. 택한 나의 그릇

한줄 요약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뒤집어져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었다.”

연구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둘 심산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그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무어라 표현해야하나 고민하다가 변화되다, 바뀌다, 많은 표현을 생각하다가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뒤집어졌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 도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1~8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처럼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이렇게 뒤집혔다.

26장에 가면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 뒤집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율법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이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먹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지 그가 바뀐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밖에는 그가 이렇게 뒤집힐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율법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철저히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 잘난 사람이요, 너희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를 비교하고 확인하던 삶에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이전보다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설교자회의(20240524)

3. 본문: 사도행전 15:1~11절

제목: 구원을 얻는 방법

대지 1. 모세의 율법

2. 예수의 은혜

한줄 요약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단번에 드러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때문입니다.”

연구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 불어 닥친 내적 문제 중에서 그 대표적인 율법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요구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며, 그걸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8~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반대쪽 개념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믿다, 신뢰하다’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앞서 말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 우리 쪽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무언인가 더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헌금해야지’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된다면, 그게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설교자회의(20240524)

4. 본문: 사도행전 20:17~35절

제목: 성령에 매인 바울

- 대지 1. 죽음까지 각오한 예루살렘 행(行)
2. 죽을힘을 다해 교회를 살피라는 명(命)

한줄 요약 “바울은 성령에 매여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전진했고, 죽을 힘을 다해 전했다”

연구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길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자신이 매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은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일 진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성령님은 바울에게 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곳까지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라는 것에 대한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을 적용시켜본다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잡히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로, 죽음을 각오한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죽을힘을 다해 교회를 살피라는 요구였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 떼를 아까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지기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장로들도 목자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맡겨진 양들을 잘 치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자신을 위한 요구보다는 타인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나 혼자 승승장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자라고 성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잘되기를 위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해 더 잘 참아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돕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바라는 이유를 찾아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회의(20240524)

5. 본문: 사도행전 28:23~31절

제목: 우리가 원하는 결말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말

- 대지 1.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전파된 복음
2.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복음전파

한줄 요약 “불신앙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다.”

연구

누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기록함에 있어서 왜?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만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을까? 목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지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잡혀왔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히 죽는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며 기대했던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무리 되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며, 커지는 것이며, 신자는 한 번 대단한 일을 하고 말아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진다 한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신앙 생활도 아니라는 목상이 되었습니다.

17절에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숨만 돌리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바울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까지 듣든지 아니듣든지 거침없이 예수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는 성령에 매여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복음을 전파하는 신자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지, 그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 절정의 장면을 만들고 사라지는 소모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수하며,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도행전의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아지고, 잘되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보여주시고 싶은 결말은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신 그곳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묵묵히 살아내는 삶이지 않을까 묵상해봅니다.